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은행·제2금융권 외화유동성비율 양호

- 금감원은 각 금융권역별 감독규정 등에 근거한 외화유동성비율(3개월) 및 만기불일치 비율(7일, 1개월)의 준수현황을 점검한 결과, '09.12월말 금융회사의 외화건전성비율은 감독당국의 지도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.
 - 현재 외화건전성 규제대상인 금융회사는 국내은행 18개사를 비롯해 증권사 2개사, 증권사(외화부채/총자산 비율이 1% 이상) 9개사, 보험사 6개사, 여전사 27개사 및 선물회사 9개사로 총 71개사임.
 - '09.12월말 18개 국내은행의 3개월 이내 외화유동성비율은 105%로 나타나 지도비율인 85%를 웃돌았으며, 7일 및 1개월 갭비율도 각각 2.8%, 1.1%로 지도비율(0%, △10%)을 상회하고 있음.
- 종금, 증권, 보험 등의 제2금융권 외화건전성비율도 지도비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양호한 수준을 나타냄.
 - 3개월 외화유동성비율에 있어서는 '09.12월말 현재 증권사 108.0%, 증권사 117.2%, 보험사 226.4%, 여전사 169.5%, 선물회사 111.4%로 지도비율(80%, 종금 85%)을 크게 상회함.
 - 7일 갭비율은 증권사 5.3%, 증권사 15.4%, 보험사 46.7%, 여전사 3.7%, 선물사 2.1%로 지도비율(0%)을 상회하면서 양호한 수준을 보임.
 - 1개월 갭비율 역시 증권사 2.4%, 증권사 9.1%, 보험사 45.6%, 여전사 4.0%, 선물사 7.8%로 지도기준(△10%)을 상회하고 있음.
-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회사의 외화건전성 지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감독 강화를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임.
 - 금년중 국내은행에 대해서는 외화자산 회수 가능성을 감안한 유동화 가중치를 부여하고, 외화안전자산 보유의무, 중장기외화대출재원조달비율의 지도비율을 80%에서 90%로 상향조정 할 방침임.

('09.12월말 국내 금융회사의 외화건전성비율 준수 현황, 금융감독원 외환업무실, 3/29)